

# 청소년들에게 권하는 책

## 출판협회 선정 '이 달의 청소년도서' 94년 6~8월분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가 선정하는 '이 달의 청소년 도서' 94년 6~8월 분으로 다음 17종(19책)의 도서가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종교(1종) 사회과학(3종) 기술과학(1종) 순수과학(1종) 어학(1종) 역사(2종) 문학(8종). 재단법인 한국출판공고(이사장 정진숙)는 총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정 도서 1종당 300부씩을 구입, 전국 각 지방의 공공도서관 132곳을 비롯, 청소년 선도기관, 소년원, 지방 문화원 등 300곳에 기증했다.

### 벌거벗은 신들의 세상 (1·2)

한산 지음

올림푸스 신전을 배경으로 신과 인간의 탄생, 그리고 그들의 대결구조를 그린 「그리스 로마 신화」를 현대적 감각의 소설형식으로 풀어 쓴 책.



제1권 '신편'과 제2권 '영웅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저자는 소설 형식을 빌어 쓴 이 책에서 인간이 어떠한 고난기를 거쳐서 문명을 건설해 나갔는지, 또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춘다. 신화들이 어떠한 문화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서양 문명의 원형을 흥미있게 여는 열쇠 역할을 한다. 실록출판사/A5신/268면/5000원

### 일본은 없다

전여옥 지음

현재 한국방송공사 외신부에 근무하고 있는 저자가 한동안 일본에 상주하면서 본 그곳 일본인들의 생활습관과 사고방식, 사회제도, 생활문화 등등을



간결하게 기술했다. 일본인의 속내를 예리하게 파헤쳐 증내는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거시적인 명제를 흡수한다. 저자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는 역사적 과거, 그중에서도 중군위안부의 문제를 끌어오면서 "일본은 없다"고 분노한다. "상처도 돈으로 때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일본인에 대한 격한 비판론이다. 지식공작소/A5신/352면/6000원

### 문화로 본 현대일본

김문환 지음

우리에게 대중문화라는 형태로 수용되고 있는 현대 일본의 문화정책적 단면들을 확인해 본 책. 일본의 문화정책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제1부 '일본의 문화정책과 생활현장'은 문화환경론과 현장확인을 통한 문화행정론 분야이고, 제2부 '일본의 문화환경과 문화정책'은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를 침식해 오는 일본의 문화정책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것. 마지막 제3부 '현대연극으로 본 일본'은 저자(서울대 미학과 교수)가 일본의 현대문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해 보기 위한 의도로 쓴 글모음이다. 나남출판사/A5신/328면/7500원

### 부끄러운 아리랑

천소영 지음

무심코 사용하는 오래어와 한자, 일본어 투의 말 등 우리말을 오염시키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우리말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한국인의 두리뭇실한



수치관념, 우리말의 미묘한 감각성과 표현, 고유어 되살리기, 우리말의 오용사례, 남북한의 언어를 통일해야 하는 필요성 등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이 전해주는 교훈은 우리말의 소중함을 깨달아 부끄러운 한국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암사/A5신/388면/5800원

### 미래를 조각하는 아이들

문화일보 국제부 기획팀 엮음



자신의 미래를 직접 선택하고 준비하는 세계 6개국의 젊은이 34명의 이야기를 수록했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되겠다는 중국의 중화요리

학교생을 비롯, 프랑스의 목공 기술학교생은 대학을 마다하고 예술혼을 지닌 목공 기술자가 되는 꿈을 키운다. 그외에 최고의 스시 요리사를 목표로 한 일본의 요리 전문학교생, 간호사가 되겠다는 독일의 장애인 학생, 발톱이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습하는 러시아의 발레 학교생 등 자신의 '미래를 세심하게 조각하는' 청소년들의 열정과 그들의 미래를 키우는 진지한 교실풍경을 보여준다. 김영사/A5신/206면/4500원

### 즐거운 화학실험 ①

정해상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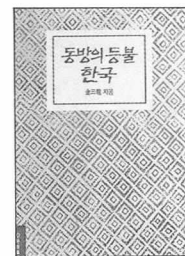


화학의 기초 지식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한 두편의 책을 대본으로 하여 즐거운 화학실험을 전개해 나가는 책. 「화학의 돋보기」는 일본 도쿄 대학의

도모다 요시노리가 쓴 책으로, 요술안경을 통하여 원자와 분자를 관찰하는 내용이다. 뒤이어 수록된 「촛불의 과학」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가 왕립연구소에서 청소년들을 모아 놓고 6일 동안 강의한 내용을 하나로 묶은 것. 전기분해에 관한 법칙을 발견하기도 한 그는 양초는 왜 타는가, 양초 아닌 다른 물질들은 어떻게 타는가, 공기의 성분은 무엇인가 등 오늘날 우리가 화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의 기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겸지사/A5신/228면/5000원

### 동방의 등불 한국

김삼룡 지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5천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고 '진정한 한국인'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책.

'살아있는 병풍'에 비유되는 한국의 산하 곳곳을 소개하고, 단일민족의 정기와 배달겨레로서의 긍지를 설화하면서 한민족의 뿌리를 찾는다. 한국인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간결한 문체에 실어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 한국적인 색채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행림출판사/A5신/468면/7500원

### 황금가지의 나라

박용숙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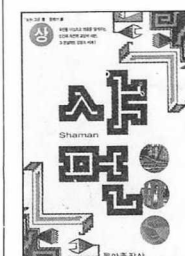


우리 역사와 문화를 보는 신선한 감각과 해석이 가미된 에세이집. 전체 27장으로 구성됐으며 저자만의 독특한 관점과 해석이 돋보인다.

저자는 세계에서 금관을 제일 많이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이지만 그 금관은 한 나라의 보물이 아니라 세계의 보물이라는 얘기를 한다. 또 아프로디테는 황금 사과를 받아 미의 여왕이 되었고 허황옥은 노란 대추를 받아 황후가 됐다는 얘기, 저고리 치마는 천사의 날개를 본뜬 옷인데 오늘날의 '바지 저고리'라는 말은 가장 친박한 것의 대명사가 됐다는 등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끌어온다. 철학과현실사/A5신/338면/6000원

### 샤먼 (1·2)

노아 고든 지음/윤희기 옮김



미국 개척기 당시의 모험을 배경으로 한 가문의 격정적인 삶의 이야기를 쓴 장편소설. 잃어버린 청력 대신 뛰어난 영감으로 훌륭한 의사가 된

젊은 의사 콜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여인들의 나신 스케치가 있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하는 데서 소설은 시작된다. 아름다움과 섬뜩함 그리고 감동마저 뒤섞인 이 소설은 2대에 걸친 의사 가문과 그들 부자(父子) 의사가 사랑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새롭게 출현한 현대의학에 대해서도 다룬다.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감동적이다.

동아출판사/A5신/각 398, 424면/각 6000원

## 꺼삐딴 리

전광용 지음



적당하게 편승해 살아가는 주인공의 인간상을 냉철한 시각으로 그려낸 장편소설.

주인공 '이인국'은 1.4후퇴 때 가방 하나만 챙겨서 월남한 인물. 작가는 그가 시대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보여주는 능란한 처세술과 내면의 움직임에 한 개인의 내면 세계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시대적 속성으로 전화화시키고 있다. 당시의 사회상과 인간상을 잘 반영한 작품이다.

을유문화사/B6/252면/2500원

## 신라의 동해구

황수영 지음/안장현 사진



경주 못지않은 고대사의 한 문화적 지형으로 꼽는 '동해구'에 관한 역사적 사료와 해석을 붙인 책. 우리문화의 굳건한 전통과 진수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교양한국문화사' 총서 제8권이다.

'동해구'는 대왕암을 중심으로 감은사, 이견대, 석굴암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신라의 호국성역. 저자는 대왕암의 조영방식,

감은사와 이견대와 석굴암의 축조시기와 방위 등을 오랜 시간을 들여 실측탐사한 결과 동해구의 역사적 문화적 의의를 "동해구가 없으면 석굴암도 없다"로 요약한다. '동해구'는 「삼국사기」에 단 한번 나오며 오늘날에 와서 사어가 됐다고 전한다.

열화당/A5/82면/4000원

## 꽃과 소녀와 달과

김동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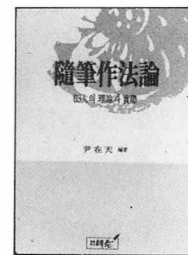
소설지 「무녀도」 「황토기」 「사반의 십자가」 「乙火」 외에 여러 권의 시집과 수필집, 평론집을 상재한 작가의 자전적 에세이.

제1장은 '작가의 문학적 자화상'으로, 작가 스스로가 회고한 습작시절의 풍경과 문학세계를 덩달히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부터 마지막 제4장까지는 자신의 주요 작품과 항상 그랬듯이 그 주제로 떠오르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다룬다. 작가는 그 상황적 조건에는 대개 민족이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신과 인간과 민족이 작가의 정신적 핵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와 동기를 반추해 보는 아름다운 에세이다.

제삼기획/A5신/268면/5000원

## 隨筆作法論

윤재천 지음



현재 수필 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63명의 작가들이 구사하고 있는 수필작법과 대표 작품에 대한 창작노트를 첨부하여 수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설명한다.

저자는 현대의 수필이 수필 창작의 이론과 끊임없는 실험정신과 새로운 작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작가 고유의 목소리를 작품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기술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에 관해서 설명한다. 간결하고 쉬운 설명으로 수필쓰는 법을 기술하고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수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수필쓰는 법을 배움으로써 생활문학인의 면모를 가늠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세손/A5신/546면/10,000원

## 남극과학 이야기

김수암 지음



92년에 제5차 남극 월동대장으로 1년간 활동한 적이 있는 저자가 청소년들이 남극에 대해 갖고 있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또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모두 10개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남극의 자연과 생물, 월동생활, 자원, 연구활동, 환경보호운동, 북극과 남극의 비교, 남극의 날씨와 자연, 남극의 발견과 탐험기, 남극 바다의 생물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의 생활과 소감도 수록했다. 100여장의 사진이 들어 있어 남극에 대한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

서울프레스/A5신/232면/6000원

## 명저의 고향

윤정국 외 지음



지난 해 '책의 해'를 맞아 국내의 명저의 산실을 탐방한 동아일보 취재팀의 기획시리즈 '명저의 고향'을 엮은 책.

제1부 한국편과 제2부 해외편으로 나뉘어 있으며 여기에 선정된 도서는 모두 47권이다. 독창적인 세계관을 창출해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책이 탄생한 지역과 작가의 고향 등을 방문한 탐방기이다.

명저의 산실을 취재한 저자들(동아일보 윤정국, 고미석, 김광원)은 이 시리즈를 위해 지구촌 곳곳을 두루 다니며 현장을 고증하고 관련인물들의 증언을 듣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비룡소/A5신/300면/6000원

## 다물홍방의 노래

다물민속연구소 엮음



한민족의 정신세계와 통치 이념, 그리고 자기 수련법을 압축해 놓은 시모음집.

'多勿'은 고구려 때 평양에 살았던 '을밀선인'이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3천명이 되자, 나라를 융성케 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그때의 노래를 지칭하는 말이다. 제1부는 '어록편'으로, 환인에서부터 이희소에 이르기까지 1백여명의 인물들의 행적이 수록된 문헌을 참고로 하고 있다. 제2부 '시편'에서는 '어아가' '도리가' '다물홍방의 노래' 등 60여편의 시를 수록했고, 마지막 제3부에서는 광개토태왕릉비, 권율, 광재우, 송창석 등 40여명의 비문(碑文)을 해석, 수록했다.

다물/A5신/286면/4000원

##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강용자 지음



8·15 해방 후에 북한의 공산당 정치가 싫어서 월남했거나 혹은 국군이 된 인물들, 그리고 6·25때 인민군 전사로 끌려 나와 포로가 되었다가 남한을 택한

주인공의 기구한 운명을 담은 장편소설.

작가는 동족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었던 처절한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면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남한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기 위해 또 하나의 싸움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설화했다. 소설속의 인물들은 그 모진 세월을 견뎌왔으나 이제는 죽기 전에 고향의 부모, 형제, 처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불확실한 소원 하나를 가슴에 품고 있다.

삼신각/A5신/296면/5800원